



조간 제7863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음력 5월 21일)

청년 농업 창업의 물결... 전남에서 시작되다



전남엔 묵묵히 자신만의 농업 브랜드를 키워가는 청년들의 움직임이 있다. 농업이라는 전통 산업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창업이라는 도전을 통해 농촌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청년창업타운'이 그곳이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주관하고 있는 청년창업타운은 단순한 농업 교육 기관이 아니다. 이곳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진기지다. 기존의 '귀농·귀촌'과는 결이 다르다. 여기 모인 청년들은 단순히 농사짓는 법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농업을 비즈니스로 만들고, 콘텐츠로 재구성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방법을 익히고 있다. 청년창업타운은 이제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 농업 정책 전환의 상징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청년창업타운에서 펼쳐지는 혁신의 현장속으로 들어가본다.

전남도 민선 7기 공약... 2021년 개소
농업 구조적 위기 해소 등 의지 담겨

.....
'비즈니스센터·제품지원센터' 중추
아이디어 구체화·자금 조달 등 지원

.....
3년만 회원 890명·평균 매출 3배 증가
지역균형발전 우수사례 선정 등 성과

전남도농업기술원 안쪽, 유리창이 반짝이는 현대식 건물 하나가 시선을 끌었다. 전통적인 농촌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한편에는 '청년창업타운'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창업과 농업, 전혀 어울리지 않은 두 단어가 매우 낯설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하루를 보내고 나니, 농업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

청년창업타운은 단순한 귀농 교육시설이 아니었다. 이곳에서는 농업을 '사업'으로 다룬다.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만들고, '고객'을 분석하며, '수익모델'을 설계한다. 농업을 생산이 아닌 기획의 영역에서 바라본다는 점이 신선했다.

마치 IT 스타트업 사무실을 연상시키는 비즈니스센터 내부에는 회의실, 협업 공간, 세미나실이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었고, 실제 농식품 스타트업들이 제품을 개발하고 투자 유치 전략을 구상하는 모습이 분주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농업에도 기술이 필요하고, 마케팅이 필요하고,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정현철 청년창업팀장의 말은 이처럼 단호했다.

그는 농업을 단순히 작물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험하고 혁신하는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창업타운은 2018년 민선7기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공약에서 출발해, 2021년 11월 전남도농업기술원 내에 문을 열었다. 출범 배경에는 농업의 고령화, 청년 유출, 소득 불균형 등 농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꿔 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실제로 한국의 농업업 소득(2022년 통계청 자료)은 월 231만 원으로 타 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런 구조를 개선하려면 농업을 새로운 시선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청년창업타운이 운영하는 핵심 인프라는 크게 두 축이다. '비즈니스센터'와 '제품지원센터'가 그것이다. 비즈니스센터는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자금 조달부터 IR 피칭까지 창업의 전 주기를 지원한다. 창업교육, 시드머니 지원, 액셀러레이팅 캠프, 투자 IR, 스케일업으로 이어지는 5단계 지원 체계는 매우 체계적이다. 이곳에서는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품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아이디어를 '현물화'하는 공간이다. 100종이 넘는 가공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HACCP 기준을 만족하는 위생 설비까지 갖추고 있다.

젊은 창농가들이 이곳에서 레시피를 개발하고, 시제품을 만들며, 실제 소비자 반응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보니, 그 열정과 현실감이 그대로 느껴졌다. 스틱젤리, 썰라면, 팻푸드 등 실험적인 제품이 이곳에서 탄생했다.

이처럼 청년창업타운은 단순한 창업공간 제공을 넘어, 전 주기 창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운영 3년 만에 회원 수는 약 240명에서 890여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입주 기업들의 평균 매출도 2배 가까이 성장했다.

고용 창출 역시 괄목할 만하다. 2021년 81명에서 2024년 751명으로 급증한 수치는 이 공간이 단지 '교육장'이 아니라 실제 경제적 가치 창출의 주체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교육 프로그램 역시 실전 중심이다. 창농 교육 수료생만 매년 700여 명 이상이며, 이들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서 창업으로 이어



전남농업기술원은 지난해 청년농업인 창농 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서 투자 협약식을 개최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최근 청년 창농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는 실질적인 경로를 제공한다.

교육은 이론보다는 실습, 현장 밀착형 컨설팅, 멘토링에 중점을 둔다. 실제 농업인들이 창의적인 제품 아이디어를 설계하고, 브랜드화하는 과정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청년창업타운은 또한 '농업-전통 산업'이라는 고정관념을 바꾸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청년창업타운의 경험을 바탕으로 'K-Agri 스타트업 생태계'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3·3·3 프로젝트(3배 창업 예산, 3000억 투자 유치, 3000명 청년 유입)를 기반으로, 농업 창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농업을 다시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세우려는 시도의 하나다.

무엇보다 이곳의 비전은 창업 이후의 '성장'에 있다. 창업 후 수년 간 기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목표다. 기업 진단을 기반으로 각기 다른 수준의 기업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마케팅, 재무, 유통, 고용 등 창농 기업의 경영 전반을 컨설팅한다. 이렇게 실질적인 경영 지원을 통해 기업 생존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청년창업타운의 성과는 정부 차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2024년에는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 우수사례

로 선정됐고, 타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견학이 잇따르고 있다. 향후에는 전국으로 모델을 확산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운영 지침도 정비하고 있다. 이는 단지 전남의 성공을 넘어, 농업 창업 전반의 전환을 이끄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기대하게 한다.

현장에서 느낀 청년창업타운의 가치는 분명했다. 이곳은 농업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청년들이 미래의 농업을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다. 농업을 창업의 언어로 해석하고, 실패를 배움의 자산으로 바꾸는 이곳의 문화는 지금 우리 농업이 꼭 필요로 하는 변화의 모습이다. 농업이 기술과 창의, 시장과 연결되는 새로운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이 공간에는 가득했다. 청년창업타운은 여전히 변화의 시작점에 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은 이미 전국 각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 농촌은 청년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청년과 함께 혁신의 파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전남 청년창업타운이 있다.

김행관 전남도농업기술원 원장은 "전남 청년창업타운은 청년의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과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창구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제품지원센터에서 기구설 제빵교육을 하고 있다.



네트워킹 데이에 팀별 공동과제를 수행하는 모습.